

후회해요



멸종하는 동식물이
하루에, 무려 100종이나 된다고 해요.

인간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야생동식물들의 삶을 방해했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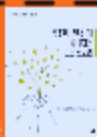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인간중심으로
맹렬히 활동해온 걸까?

왜 동식물들의 주거지를 침범한 걸까?
돌이켜보며 후회해요.

우리 인간들은 왜, 지구상에서 같이 사는
동식물들을 보살피지 않았을까요?



212쪽



32쪽



61쪽

우리는 이제부터 지구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새롭게 다져갈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사람 외에 모든 생물 및 환경은 ‘정복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언약 상대자’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인간만 탑승했던 게 아니었죠. 홍수가 끝난 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보고 들은 생명체가 인간뿐이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창세기 9장).



멸종위기 동식물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조사해보세요.